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1년도 기도제목

- 1)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13~14)
- 2) 신부단장을 잘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23)
-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요한일서 4:11~12)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김요한 주현권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양도덕
정규원 김영석3 오원석 장성식
황현진 이풍근 이정완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일
김성덕 노영진 문신현 유동훈
김기석 권상내

여 부목사/ 이미경 이수진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전 도 사/ 성하은

여 전도사/ 주지영 김영순 권영남 김정희
박갑숙 기명숙 차경숙 정동일
최금옥 최영신 조영숙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이미옥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김효정
최미숙 윤영자 한금주 임금선
이봉남 김도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주순영 황금란 박애형
김정희66 천영숙 김영숙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권영자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주현철 양도덕 김영석3 이정완
최금옥

지교회 교역자/ 김요한 이행원 강승표 길태식
황병덕 문태구 박형렬 김명술
정철수 최재수 조석희 박재영
서진범 박종대 오환준 김혜경
김창숙 차찬현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경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한진범, 김은주, 김종훈,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끄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천연, 온두라스 에스태반 한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프프
미 국: 남상송
캐 나 다: 이상일
영 국: 제인 음플로그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초찬형, 성 수,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굴: 발자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자이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규동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문경진
유익선 박진우 최정수 이종섭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김영식 박경준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흥만 김규식
송광근 김진홍 송석길 이수형 이강준 장영규 이익성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만 홍명일
김준호 빈성남 조금석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이수현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오광선 정태환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근 이강현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교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구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성기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랫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원 닛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125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57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115장	다 같 이
기 도	이성숙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0:3~6	사 회 자
찬 양 참 귀한 선물 주 예수/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2차 영혼육(8)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52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이석규 목사

대표기도	류순주 전도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5:15~21/ 사회자
찬양	기뻐하라 주 오신다/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성유진 형제
설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노영진 목사

대표기도	조은영 전도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0:1~6/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해가 뜨니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박형렬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성탄 전야예배 관계로 금요 철야예배는 없습니다.

2-8회 14차 작성 다니엘 철야(온라인)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12월 13일(월) ~ 2022년 1월 2일(주일)
주제/ 2022년 사명을 위해

새벽 예배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에
협조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 시
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조혁희 목사	최영자 목사
주일 저녁예배	문신현 목사	이영인 전도사
수요 예배	정규원 목사	차난영 권사
금요 철야예배	임학영 목사	이복님 원장



강단헌화 갤러리



Dotted lines for writing notes.

제 목 : 2차 영혼육 (7)
 본 문 : 고린도후서 10:3~6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 아닌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 곧 육과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육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밝히 알려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육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영혼육에 대해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먼저 자신의 영혼육을 발견하여 부족한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때, 즉 자신의 영혼육을 온전케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결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영혼육의 말씀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게 뻗은 지름길입니다.

1.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발견하고 벗어 버려야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항상 혼의 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매순간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내용을 기억해 둡니다. 전에 보고 들은 여러 내용들을 떠올려 생각하거나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모두가 동일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왔는지,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혼의 작용을 할 때, 진리에서 벗어난 혼의 작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는 진실을 말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오해를 하지요.

가령,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사무실을 깨끗하게 쓰시다”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꼬아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또 나를 빗대어서 말하는구나’ 생각하거나 ‘자기가 직접 청소하면 될 텐데 남들한테 시

키려고 한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저런 비진리의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할 때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곧 비진리의 생각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생명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롬 8:6).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비진리로 몰들어 악하게 변해가고, 하나님 앞에도 담이 되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이지요.

2.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려면

때로는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하면서도 즉시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만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이 다르고,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시간과 장소,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성경 66권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지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친한 친구가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썼다면, 이때 친구의 잘못을 덮어 주는 것이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명 쓴 사람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지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식사 시간이 다 되어 남의 집에 갈 경우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식사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비취 보았을 때 이 또한 엄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 방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었지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로는 그냥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한다가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받기 싫은 전화가 걸려 올 때나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 자녀들에게 “지금 없다고 해라” 하고 거짓말을 시키지

요. 이렇게 번번이 진리에 어긋나게 행하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깨닫지 못합니다. 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는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사용했으면서도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취볼 때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자기 유익을 구하여 비진리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남을 판단 정죄할 때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들까지도 편이 갈라서서 “이들이 옳다, 저들은 그르다” 판단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이 과연 진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중심을 다 잃지는 못한다 해도 진리의 말씀에 비취 보면, 각 사람의 말 한 마디나 행동 하나를 통해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악한 표현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알리고 비방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으시겠는지요? 저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에 사용된 악한 표현들만 봐도 그것을 쓴 사람이 얼마나 비진리의 마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우리 안에 양식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세상에서 비진리로 잘못 입력된 기준들을 벗어 버려야 하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모두 벗어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를 벗어 버릴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고전 3:18).

둘째로,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버리려고 해도 상대를 볼 때 싫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느낌이라는 것도 결국 혼의 작용 곧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어릴 때부터 코끼리와 매우 친해서, 코끼리는 소녀의 목에 긴 코를 감고 장난을 하기도 했지요. 하루는 이 소녀가 자는데 독사가 와서 그 목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독사인 줄 알았다면 소녀는 얼마나 두렵고 징그럽게 느꼈을까요?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기 목을 감는 것이 코끼리의 코라고 생각하니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좁은 폭의 나무다리를 건너갈 때, 그 다리가 지면에서 1미터쯤 되는 높이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리를 10~20미터쯤 되는 높이에 두면, 그때는 겁이 나서 지나가지 못하지요. 또 구덩이나 지렁이, 지네 같은 것들을 보면 징그럽고 더럽다고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잡아먹고 사는 닭은 맛있게 먹습니다.

이처럼 느낌이라는 것도 다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느낌으로 받으면 됩니다. 내 성격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참 싫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좋은 느낌과 감정으로 남게 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느낌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선으로 생각하여 선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선한 것을 보고 입력시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을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마스크이나 인터넷을 통해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거짓된 것, 자기 유익을 구하고 간사하고 배신하는 것 등 악한 것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자신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접하게 된다 해도 매순간 진리로, 선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싶다”, “참 멋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로 분별하는 사람은 “저렇게 폭력적인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육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여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온전히 벗어 버리고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과 예수 그리스도

읽을 말씀 / 빌립보서 2:8

외울 말씀 / 빌립보서 2:8

참고 말씀 / 베드로전서 2:22, 마태복음 12:19~20

교육 내용 /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함을 닮는 성도가 되게 한다.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의 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희생시킴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볼까요?

1. 고운 분이셨습니다.

모양이 거칠지 않고 모나지 않은 것, 부드러운 것을 '곱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행동, 말씨, 모든 것이 고우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표현했습니다(사 42:2).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놀라운 권능이 있어서 병자에게 손을 얹기만 하셔도, 혹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았고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등 중증 환자들이 온전해졌지요. 거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거나 칭송받기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지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길을 걸을 때도 조용히 걸으셨고 요란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제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은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소자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섬기는 자세로 대하셨고, 오히려 낮아져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하는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틈만 나면 올무를 놓아 잡으려 하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책망

을 하셨지만 이는 그들과 싸워 이겨서 억지로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신 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법한 영혼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고운 마음을 지니신 분이 그 누구에게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말과 행실이 참으로 거룩하고 온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운 마음을 지니면 자연스럽게 고운 말과 행실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원하고, 한마디 말도 믿음의 말, 선한 말만 하려고 하지요. 또 누구를 대하든지 자신의 말과 행실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2.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부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을 속량하시려고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또 이런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구유’에 누이셨지요.

인생들을 가난의 저주에서 풀어 주려고 부요하신 분임에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려고 채찍에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마침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넉넉하게 누릴 권한도, 자유로이 살 권리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들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셨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대로입니다.

이 희생은 ‘내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런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인생들이 내 뜻과 내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군림하고 높임 받기 위해 계산적으로 희생하신 것도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희생은 오직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가장 귀한 것 바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나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전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이 희생은 예수님께서 어찌하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고픈 마음을 표현하신 사랑의 행함이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그 귀하신 몸을 제물 삼아 인

생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희생으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열렸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희생을 떠올릴 때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희생은 의무가 아니라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 항상 간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절이나 사랑을 구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늘 간구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든 영계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온전히 헤아려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따르는 행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자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결을 위해, 사명 감당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한 바를 이뤄 가는 과정에서 혹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낙심하기보다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지. 나는 더욱 기도해야겠구나.’ 하며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을 향해 달려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신속히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째, ()

둘째,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셋째, ()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상한 갈대와 꺼져 가는 심지란?

‘상한 갈대’란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하며, ‘꺼져 가는 심지란’ ‘마음이 심히 악으로 물들어서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 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회생 가능한 영혼이 있다면 어찌하든 살 길을 열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70-8240-2075)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56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주현권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권영자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예배시간/
장 소/
문의전화/ 02-818-7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없습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가 스웨덴어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영혼육(상)」이 네덜란드어로, 「일곱교회」가 마케도니아어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노르웨이어로, 「영혼육(하)」가 조지아어로,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가 세르비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한글(958호), 영어(708호), 중국어(583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2022년도 교회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막 9:23)
 - 2) 거룩한 자녀 (살전 4:3, 딤후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겔 37:4~10)
- 정기 원로회가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12월 은사집회」를 통해서 치료받은 성도님들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에게 간증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전야예배가 12월 24일(금)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있으며, 2부에 축하행사 상영이 있습니다.
 - ※ 2부 축하행사 찬양인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 제목: Merry Christmas (부제: Praise to the Lord)
- 이번 주 금요 철야예배는 성탄 전야예배 관계로 없습니다.
- 성탄 축하예배가 12월 25일(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준비 찬양은 예배 20분 전인 오전 10시 40분부터 있습니다. ※ 설교: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2022년 사무연회가 12월 26일(주일) 저녁예배 후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사무연회는 위임받은 대표자가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 교회 달력이 아름답게 제작되었습니다. 한 가정당 1부씩 배부되며, 사무실 등에 추가로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구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 2022년 기도제목카드가 제작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인 기도제목용 작성하시어 교구장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봉투에 2022년 소속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도 소식**

양은주 집사(20교구, 새렘아동심리발달센터 대표)/

제22회 경기도 & 안산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 지사 표창장 수여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백병희 집사(2대대 8교구)(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권영자 전도사 010-7773-035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12/19 일

- 00:00 - '십자가의 도 10' 이재록 목사
- 05: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0' 이수진 목사
- 17:00 - '요한일서 강해 34' 이재록 목사
- 18:30 - '행한대로 주시는 하나님' 임학영 목사

12/20 일

- 01:00 - '요한일서 강해 39'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일서 강해 35'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15' 이재록 목사
- 10:20 - '일곱 영 3'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8'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99' 이재록 목사

12/21 화

-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9'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일서 강해 36'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16' 이재록 목사
- 10:20 - '십계명 1'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11'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9' 이재록 목사
- 18: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0' 이수진 목사
- 19:00 - 구약공과 31

12/22 수

- 00:00 - '십자가의 도 13' 이재록 목사
- 01:00 - '2차 영혼육 7'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1' 이수진 목사
- 06:00 - '육체의 겉여 9'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0' 이재록 목사
- 15:30 - '지옥 10'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일서 강해 37'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118' 이재록 목사

12/23 목

- 01:00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2'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일서 강해 38' 이재록 목사
- 08:00 - '믿음의 분량 18' 이재록 목사
- 10:20 - '십계명 3'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1' 이재록 목사
- 15:00 - 천지창조의 섭리 9
- 15:30 - '지옥 11'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101' 이재록 목사

12/24 금

- 08:00 - '믿음의 분량 19' 이재록 목사
- 12:05 - '육체의 겉여 10'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 도 14' 이재록 목사
- 15:00 - 천지창조의 섭리 10
- 18:50 - 성탄절야예배 및 축하행사 (생방송)
- 21:00 - 독일 연합대성회 3

12/25 토

- 07:05 - '공부 잘하는 비결 1' 이재록 목사
- 10:40 - 성탄축하예배 (생방송)
- 13:00 - '축복 1' 이재록 목사
- 16:00 - 영적인 존재들 17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한국어)41번(영어)42번(불어)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얼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Dec. 19(Sun.)

(John 13:34)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 Dec. 20(Mon.)

(John 14:15)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 Dec. 21(Tue.)

(John 14:26)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

- Dec. 22(Wed.)

(John 15: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he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 Dec. 23(Thu.)

(John 16:13)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 Dec. 24(Fri.)

(John 20:29) ““ Jesus said to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have you believed? Blessed are they who did not see, and yet believed.””

- Dec. 25(Sat.)

(Acts 1: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금주의 성경구절

12월 19일(주일)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월 20일(월)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2월 21일(화)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2월 22일(수)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12월 23일(목)

(요 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2월 24일(금)

(요 2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12월 25일(토)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옥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육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식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니라/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라/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될까!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이 나의 벼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뭇가에 보내니라/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여호와/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자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다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자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많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URIM BOOKS

Merry Christmas



12월 추천도서



어떠한 시련도

나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어떠한 비바람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최상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흔들릴 것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었으며,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볼골의 의지였다.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신서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4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4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2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3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4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3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4성전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